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22-
배포일시	2022.12.2.(금) 09:00	담당부서	외교부 북핵정책과 기재부 외환제도과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담당자	채경훈 / 외교부 북핵정책과장 (02-2100-8062)			
	심현우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장 (044-215-4750)			
	김정명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02-2100-1720)			

우리 정부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 우리 정부는 11.18.(금) 북한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하였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개인(8명)	리명훈
	리정원
	최성남
	고일환
	백종삼
	김철
	Kwek Kee Seng
	Chen Shih Huan
기관(7개)	조선은금회사
	남강무역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
	Anfasar Trading (S) Pte. Ltd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

-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¹⁾하거나,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²⁾하였다.

1) 리명훈, 리정원(이상 무역은행), 최성남, 고일환(이상 대성은행), 백종삼(금강그룹은행), 김철(통일발전은행)

* 안보리 결의 2321('16.11)에 의해 대성은행, 통일발전은행, 결의 2371('17.8)에 의해 무역은행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 / 금강그룹은행은 16.12월 우리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

2) Kwek Kee Seng(싱가포르), Chen Shih Huan(대만)

- 한편,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¹⁾, △북한 노동자 송출²⁾,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³⁾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하였다.

1) 조선은금회사

2) 남강무역

3) 조선은파선박회사, 포천선박회사, New Eastern Shipping Co. Ltd(마셜제도 등록, 싱가포르 소재), Anfasar Trading (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Swanseas Port Services Pte. Ltd(싱가포르 등록·소재)

□ 금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 금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정부는 그간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관련국들이 함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공조해왔다. 금번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지정은 이러한 효과를 달성해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 금번 지정된 개인 8명·기관 7개는 미측에서도 18.1월-22.10월간 독자제재 대상으로 기지정

- 아울러, 우리 정부는 금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 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 우리 정부는 그간 6회(15.6.26., 16.3.8., 16.12.2, 17.11.6, 17.12.11, 22.10.14)에 걸쳐 개인 124명, 기관 105개 독자제재 대상 지정

- 우리 정부는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끝.